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 다일공동체

2014.03



Our Children,  
Our Hope!



# 살랑대는 봄바람처럼 설레는 3월입니다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몸에 휘감기는 바람이 어딘지 모르게 포근한 봄기운을 담고 있는 듯한 3월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3월이 오면 왠지 모를 설렘과 어딘가로 출발하기 전의 두근거림이 느껴지곤 합니다.

저는 지난달 탄다일 3기 비전트립팀과 함께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밥퍼센터 개원식에 다녀왔습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어떠한 건물도 주방도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매주 1번씩 밥을 풀 때면 오백 명 이상의 아이들이 찾아와 굶주린 배를 채우고 가곤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보다 자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밥퍼센터가 지어졌습니다. 박상원, 윤석화 홍보대사님과 비전트립 팀원들은 쿤두치 밥퍼센터에서 밥을 푸고, 아동 결연을 하고 있는 아들, 딸들을 만나면서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일공동체의 소식지가 격월간으로 출판되고 주요 기사들은 해외 다일공동체 후원자들과 기도 가족들을 위해 영문 버전으로도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 알차고 감동적인 소식들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사명실현지 곳곳에서도 봄을 맞이하는 다일 가족들의 소식이 전해지곤 합니다.

네팔 포카라 다일공동체는 새롭게 시작하는 빵퍼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특히나 제빵 재료들을 운반하고 따끈따끈하게 구운 빵을 싣고 가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생명이라도 더 먹고 입힐 수 있도록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간식 한 번 먹은 셈 치고 만원의 행복에 동참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2잔의 값으로 굶주린 아이들 40명에게 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시작된 “만원의 행복”으로 나눔의 물결이 쿤두치까지, 그리고 다시 포카라를 거쳐 전 세계로 이어지도록 기도해주시고 새로운 후원자 발굴에 힘을 모아 주세요.

추운 겨울이 가고 겨우내 기다리던 따뜻한 봄기운을 많은 후원 회원분들과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3월에

작은형제  목사 올림



# CONTENTS

## 2014.03

- 02 Our children, our hope! -탄자니아비전트립
- 12 올해로 결혼 10주년...축하합니다-밥퍼봉사나눔이야기
- 16 휘영청 밝은 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 18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요 -네팔다일공동체
- 20 '하이'와 '아잉' -베트남다일공동체
- 22 도움이 필요합니다
- 23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24 다일 뉴스
- 28 밥퍼는 000이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30 나눔을 실천하는 신규후원자
- 32 후원안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4년 3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편집위원 · 김도한, 목정수, 선한주, 이가영, 최가람  
 번역 · 박운정, 이슬기, 이예형    감수 · Byron Chun    사진 · 김도한, 목정수    디자인 · 제이앤제이컴퍼니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 Our Children, Our Hope!

/ 아프리카 다일비전트립 3기



글·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변창재 원장 Tanzania Dail Community \_ By director. Chang Jae Byun

다일공동체의 아프리카 비전트립은 내가 나를 만나고 이웃을 만날 뿐만 아니라 펼쳐놓으신 복음서 같은 대자연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주 특별한 여행입니다.

2013년 1월에 1기로 시작된 아프리카 다일 비전트립이 6월 2기에 이어 올해로 3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3기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16명이 참가하셔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몸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ail community's Africa vision trip is very special one that you can worship God and have intimate and personal fellowship with God. At the same time, you also meet not only yourself and neighbor but also newly meet great nature like the gospel.

Primary and secondary Dail Africa vision trip began in January and June, 2013. In this year, Tertiary Dail Africa vision trip began, and 16 people participated in this trip which was the largest group ever. It showed that the love toward Tanzania, Africa has been getting more passionate.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카고, 캐나다, 중국, 캄보디아, 영국에서 한걸음에 달려 와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 내셔서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주신 최일도 목사(북극곰)님, 윤석화 홍보대사(산들바람)님, 박상원 홍보대사(푸른산)님, 김도한(감사)님, 김학용(봄길)님, 마웨(썬)님, 박성주(조예)님, 박완수(아가)님, 이선영(자유부인)님, 이숙의(스마일)님, 이제승(업둥이)님, 임예원(소리바다)님, 조국현(강물)님, 지미(스마일피기)님, 최원삼(스마일주니어)님, 홍성분(로즈)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비전트립 팀이 방문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밥퍼센터에 밥을 먹으러 오는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 아이들입니다. 2013년 1월부터 만 1년을 채석장 공터 바닥에 앉아 밥과 빵을 먹은 아이들. 이제는 더 이상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흙바닥에 앉아서 먹지 않아도 됩니다. 2012년 4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 '쿤두치 밥퍼센터'가 2014년 1월 31일에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완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정진호), 쿤툰치 지방정부 의장(RICHARD RUSISYE), 자원봉사 해주신 선교사님들, 일본 대사관 직원분들과 한인 교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완공식 이후 이어진 채석장 빈민촌 가정방문에서 1대 1 아동결연을 통해 '에녹', '주디' 두 명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윤석화 홍보대사님과 아이들의 만남을 시작으로 채석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직접 보고 들으며 체험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가정 방문을 통하여 비전트립 참가자 분들이 1대 1 아동결연을 약속하시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다함께 굳게 잡고 우리는 외쳤습니다.

And the participants were not only from Korea but also from the US, Canada, China, Cambodia, and UK. It was so supportive and impressive. We sincerely thank you pastor IldoChoi (polar bear), patron sukwha yoon (Shindulbaram), patron Sangwon Park (blue mountain), Dohan Kim(gahmsa), Hahkyoung Kim(bomgil), Mahwe(sun), sungju Park(joae), wansu Park(Ahga), sunyoung Lee(Jahyoubuin), Sookeui Lee(Smile), Jaeseung Lee(updungyi), Yewon Lim(Soribada), Gookhyun(Gangmul), Jeemi(smile piggy), Wonsam choi(Junior), Sungbun Hong(Rose), for sharing your time.

## Who like the vision trip team visit most?

The answer is the poor children of Kunduchi quarry have a meal at Babfor center. They had a meal with sitting on the ground of the quarry for a year since 2013 January. But they do not have to be under the hot sun anymore. Kunduchi Babfor center, began building up from 2012 April, open on January 31 2014. The officer of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anzania, the chair of Kunduchi local government, the missionaries who volunteered for this event, the workers of embassy of Japan, and Korean residents attended to celebrate the completion.

After the ceremony for the completion, we went around the quarry with the patron Sukwha Yoon, who has one-on-one relationship with Enoch and Judy, to see and hear how the children live in this environment. The very thankful thing is that the participants of vision trip made a one-on-one relationship with the kids through this home visit. We held the children's hands and shouted.

## Our Children, Our Hope!

완공식이 끝난 밥퍼센터에서 신명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맛있는 밥과 감자와 소고기 그리고 갈은 토마토를 넣고 푹 끓인 스튜, 샐러드, 향긋한 오렌지가 담긴 접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시원하게 밥을 먹습니다. 비전트립 구성원들도 한 마음, 한 뜻 되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같이하며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전해 줍니다. 받는 사람은 비록 한 손으로 받을지라도 주는 사람은 두 손으로 전하는 것이 밥퍼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센터 안의 열기는 그대로 밖으로 이어져 박상원 홍보대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너무나도 예쁜 벽화가 완성 되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태극기, 다른 벽면에는 탄자니아의 국기, 가운데 벽면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가고 있는 다일공동체의 마음과 아이들의 동심을 예쁜 그림들로 표현해 놓은 훌륭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러니 우리 아이들이 비전트립 팀을 어찌 아니 기다릴 수 있을까요?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각 나라로 귀국하였지만 이번 비전트립팀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사랑이 자라 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의 두 번째 분원이 될 우간다 방문부터 탄자니아 쿤두치 밥퍼센터로 이어질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있을 비전트립 4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Our Children, Our Hope!

An exciting party began at Babfor center. We had delicious rice, potatoes, beef, tomato stew, salad, and orange in a cool condition. The members of vision trip kneeled and provided children the meal from the heart to contact their eyes. This is the Baper mind that let us give with both hands although takers get with one hand. Patron Sangwon Park led a painting group and they made a beautiful mural. It has Korean flag, Tanzania flag, and art works that represent the mind of children and Dail community which has been making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How come the children can't wait to meet vision trip team? Even though the participants came back home after vision trip for 10days and 9nights, we hope that the love we implanted in their mind will grow well and will be in fruit.

Anyone interested in Uganda trip, Africa's second branch, or 4th Kunduchi Babfor center vision trip please contact below.



탄자니아 비전트립:  
—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의 띠를 메고...

박완수 · 캐나다 원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종신교수

난 1991년 유학의 길을 떠나, 내 꿈대로 학위를 마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대학강단에서 남편과 나란히 강의를 하면서 캐나다 원저대 종신교수가 되어 1년간의 안식년을 계기로 한국에 나오게 되었다. 한국오기 1년전부터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안식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처럼 참안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다일공동체의 영성수련은 내가 1년 한국에 머무는 동안 꼭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해외분원 가보기는 기회가 된다면 하고 바라던 바였다.

I left Korea in 1991 to study in the US, finished my degree, married, became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and have a child. Both my spouse and I were tenured at the University of Windsor in Canada and came back to Korea for a year to spend our Sabbatical in 2013. I've been waiting for this Sabbatical and only thing I wanted was to take a rest. So, the spiritual retreat offered by the Dail Community was something I truly wanted to do during my stay in Korea and visit to other Dail Communities abroad was in my wish list.

### | 1대1 아동결연 및 후원 문의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미주다일공동체 1-770-813-0899  
탄자니아다일공동체 255-786-740-003

### | 비전트립 문의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다일복지재단 대외협력실  
이애리 실장 010-3190-6726  
홈페이지 www.dail.org

### | Children-relationship and sponsor

Dail 02-2212-8004  
(Jung Min Kyung ,deputy section chief)  
USA Dail 1-770-813-0899 (Go Un Kim, director)  
Tanzania Dail 255 786 740 003  
(Chang Jae Byun, director)  
Office of foreign cooperation  
010-3190-6726 (Ae-Ri Lee)  
Homepage www.dail.org



1차 영성수련을 150기로 마치고 나자 첫번째 기회로 탄자니아 비전트립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비용도 부담이지만 일정이 구경과 겹치고 내 몸도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모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일정내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과 섬세하신 손길로 동행해 주셨다.

처음으로 해보는 비전트립은 생소한 경험이었다. 출발 일주일 전 16명의 팀원들의 리스트를 받고보니 각기 나이와 직업도 다르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9박 10일간의 일정을 어떻게 보낼까 신경이 쓰였다.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 이제 막 성인으로서의 인생의 장을 시작하는 청년들, 삶의 후반기를 맞이하며 준비를 하는 분, 또한 대중의 유명세를 치르며 살아 온 세 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도통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들이 모두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사랑에 잡힌 바 되어 남은 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일까? 서로를 바라보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남달랐다.

내 편견과 주장을 내려 놓고 상대방을 주님의 형상 닮은 자녀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니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받아들여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 찬양을 부르며, 일정 중간중간의 교제를 통하여, 어느덧 우리는 사랑의 불씨를 나누며 사랑의 띠를 매어가고 있었다. 알고보니 모두들 지쳐서 왔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

심을 느낄 수 있었다.

끓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간 여행이었던 만큼, 쿤두치 채식장 가정방문하던 날과 7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누어 주던 날은 나눔의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 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모두들 자신을 내려 놓고 쿤두치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대하면서 모두들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자세를 낮추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싸고, 건물벽을 페인트칠하고, 식재료를 준비하고,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 자원봉사자들과 탄자니아 분원식구들을 통하여 행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낌없이 주는 시간이 되었다.

뜨거운 탄자니아의 햇볕아래 피부는 까맣게 타들어 가고, 땀은 연줄 흘러 내렸지만, 사고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쳤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인대사 관저 만찬은 참으로 영광이었다. 마치도 예수님과과의 만찬을 살짝 맛보기라도 하는 듯 12명이 함께 한국음식을 나누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탄자니아 비전트립은 단연코 참 안식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여행이었다. 아하~~

After I completed the first level spiritual retreat as part of the 150th class, I was informed about the Tanzania Vision Trip. Travel expense, schedule conflict with the Korean New Year's Day, and my physical condition made my decision uneasy. However, God has blessed our team and his gentle hands touched us through our journey.

Vision Trip was a new experience for me. Spending 10 days with sixteen individuals who were mostly strangers made me a bit nervous in the first place, because I could not picture myself where I would fit. Some members are at the peak of their life stages with very successful careers, some others are at their young adult stages, some preparing their retirement, and three celebrities who have so much popularity. However, my nervous feeling was unnecessary. Was it because they were believers who made up their mind to live their lives like Jesus due to His Love? It was special the way people looking at each other and caring for each other.

After I overcame my own biases and opinions about people and accept the fact that they also have the image of God as His children, I was able to see the beauty in each individual. While singing the praise, “Where our loving fellowship is, God is near-,” small talks and conversations with each other during in between events, we started sharing the flame of love and making a circle of loving fellowship. I realized after the fact we were all weary when we joined this journey and I was able to feel God's presence among us and filling our thirsty spirit.

One of our main goals for the vision trip was to provide meals to children living in Kunduchi area. So two days for visiting families of children who were already sponsored and to be matched for new sponsorship and sharing meals with about 700 children were the best part of the trip. Those two days taught me a special lesson about the value in the labour of sharing. It was natural thing to do to kneel down in front of the pure Kunduchi children's eyes. Every little acts from wrapping the gifts, painting the Center wall, preparing the meal, and all the rest of the things behind the scene done by volunteers and Tanzania Dail Community family made the day success.

Even though the burning Tanzanian sunlight glazed our skin, we were sweating like a pig, we were thankful for the day without any accident. Then, I felt so honoured when we were treated dinner by the Korean Embassy in Tanazania. Twelve chosen individuals shared Korean meal together that evening, as if we were sharing the meal with Jesus.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atthew 11:28-30).

Definitely, I learned the true meaning of Rest in Jesus with all my body and soul from Tanzania Vision Trip. Aha--

# 희망을 찾아 떠난 특별한 여행



박상원 · 다일 홍보대사/배우

10년이 넘는 동안 다일공동체와 같은 NGO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긴급구호지역을 다녀보았지만 어느 지역 하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다일비전트립을 통해 방문한 탄자니아 다레살렘의 쿤두치 지역 역시 그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온갖 벌레들에 시달리며 질병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거친 자갈길을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오염된 물로 목을 축이며 하루 \$1도 안되는 벌이로 연명하는 사람들.. 천원도 안되는 수입을 위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의 더위아래에서 하루 종일 손으로 돌을 깨는 일을 한다니..

‘아.. 어쩌면 저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참담함에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쿤두치 지역은 바위를 깨 작은 자갈로 만드는 채석장인데 평지의 돌을 파내면서 지형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돌을 계속 파내어 채석이 완료되면 그나마 그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 삶의 자리까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어 저들의 생활이 채석을 통해 나아지기 보다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그 속에도 희망은 있었다. 어느 빈곤지역을 가더라도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못 입고 못 살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서 순진함과 순수함, 아름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아이들의 삶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과 시선일 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탄자니아 비전트립을 통해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받고 돌아온 것 같다. 저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탄자니아에 ‘다일밥퍼센터’와 ‘다일비전센터’가 많이 설립되어 저들의 의식주 개선을 위한 급식과 기초교육, 자립훈련 등이 필요함을 느꼈다.

우선 밥퍼센터에서 밥 한끼를 채워주고 비전센터를 통해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면 이 지역뿐 아니라 탄자니아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인재를 양육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 \$10,000을 후원하는 평생천사와 \$1,000을 후원하는 천사, \$100을 후원하는 \$100의 기적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탄자니아 비전트립을 통해 다일의 해외 사역에 대한 신념과 진정성, 소외계층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일공동체.. 그들의 눈에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며 행복하게 비전트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탄자니아뿐 아니라 우간다, 나이가 아프리카의 더욱 많은 나라들을 섬기는 다일밥퍼센터와 비전센터가 설립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앞장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다일의 사역이 아프리카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남아메리카까지 지경이 넓어지고 양적뿐 아니라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사역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가 되기를 소망한다.





해 외 아 동 결 연

#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세요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톤레삽 호숫가 빈민촌에  
잘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던  
17살 소녀 마까라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일용직 건축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하루 수입  
\$3.5에 의존하며 11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로 언제나 7명의 언니, 오빠  
그리고 막내 남동생에게 밀려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마까라...  
그러던 중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  
기적적으로 이어진 아동결연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악 교육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다일중앙단을 통해 음악을 접하고  
2010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마까라의 삶에 큰 변화와 꿈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일공동체와 같은 NGO의 단원이 되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희망이 없어 늘 어둡기만 하던 마까라는  
결연을 통해 새 희망을 찾고  
NGO 단원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동결연이 아니었다면 꿈꾸지 못했을 희망..  
아동결연이 가져다준 기적!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세계의 빈곤아이들이  
희망없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동결연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 + 1:1 아동결연 후원자가 되시면?

아동소개카드	결연아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자필편지	결연아동이 후원자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성장보고서 성탄카드	후원신청 후 연1회 아동성장보고서와 성탄카드를 연말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지	매월 발행되는 다일공동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1:1 아동결연은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이어집니다.  
지역의 특성상 아동의 이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원안내전화 02) 2212-8004

#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 까지”

밥퍼밴드 1개 5,000원으로  
지구촌 빈곤 아동 20명의 한 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밥퍼밴드 1개 5,000원



### 문의

서울다일교회 02.2243.8004 / 임정순 전도사 010.8862.083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 부분부장 이지현 목사 010.4205.5004  
www.dail.org



# 올해로 결혼 10주년... 축하합니다



특별한 결혼 10주년  
밥퍼에서 나누는 뜨거운 사랑

글 · 백선기(밥퍼나눔운동본부)

안녕하세요.

김종운님 그리고 이명신님 결혼 10주년을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Q.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청년 때 높은뜻승의교회 사회봉사부에서 만났어요.  
만남 해 교제를 시작해서 다음해에 결혼했죠.

Q. 지금 두 분의 직업은? (두 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종운님- LG전자 모바일연구소 개발기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는 4박5일의 휴가동안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텐데 '밥퍼' 봉사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번주가 결혼기념일이었던데요. 10주년 맞이 리마인드 웨딩 기념하고 싶었어요. 작년 8월에 다시 프로포

즈를 했어요. 며칠 전 웨딩촬영까지 마친 뒤 결혼식에 들어갈 결혼비용을 후원하기로 했고, 휴가를 맞춰 4박5일간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Q. 올해 계획 했던 일이나 꿈꾸었던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명신님- 리마인드 웨딩 계획을 가장 크게 세웠어요. 우리 부부가 휴가를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지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고학년 올라가는 첫째, 초등학교 올라가는 둘째, 유치원 들어가는 셋째까지, 아이들이 잘 적응하면 좋겠네요.

김종운님- 4년간 중국에서 생활 후 작년에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하였는데 회사에서의 성과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Q. 다일공동체밥퍼에서 봉사하시고 나눔에 대해서 바뀐 생각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처음 신혼 때 봉사하면서 저희들이 나누는 것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이 기억나요.

Q. 나눔이란 부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도 앞을 보지 않고 하객들을 바라보며 토크쇼처럼 진행을 했었구요, 봉사도 소통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뽀지 못하는 분들과 내가 무엇을 베푼다는 느낌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한다는 의미로 다가와요.

Q. 봉사를 통해 스스로 가장 많이 변화했다고 느낀 것이 있었나요?

한마디로 봉사를 안 하면 인생의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더욱 깊어지고 심적으로 채워짐을 받는데, 사실 봉사라는 것이 처음 첫발 내딛기가 어려운 것이지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부부는 습관적으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매년 결혼기념일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구요. 막연하게 봉사를 하긴 해야지.. 라는 생각만 하게 된다면 하기 어려웠겠지만 매년 정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밥퍼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식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밥퍼가 계속 유지가 돼서 끝까지 봉사하러 오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께서는 봉사도 후원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적으로라도 반복한다면 반드시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20주년 때도 리마인드 웨딩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계기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봉사라는 것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소식지를 보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은 사람이자나요. 밥퍼여 영원하라!

만원으로  
해외 빈곤아동 40명의  
한 끼 식사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

영화 한편

케익 하나

액세서리 한개

만원은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달콤함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선물하고

희망을 키워주며

살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후원안내전화 02) 2212-8004



## 휘영청 밝은 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휘영청 밝은 달이 등실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신명난 잔치가 이른 아침부터 밥퍼 앞 마당에서 펼쳐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밥퍼 스텝들은 옷놀이에 쓸 대형 옷을 만들며 이날만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밥퍼는 밥만 먹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한가족으로 한마음으로 나누는 행복한 공간을 소망하기에 더욱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는 것이지요.

A festival was held on Babfor's front yard early in the morning on the 15th day of January, a Korean holiday called Daeboreum to celebrate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rising to the highest in the sky.

For several days, Babfor staffs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day, making giant yut sticks to play a traditional board game called Yut Nori. As we want Babfor be more than a place where people eat up and leave but rather where they feel home and share joy and happiness, we eagerly prepared and waited for this festival.

행사 시작 전에 가득히 선물들을 쌓아놓고 옷판을 펼치는데 모두가 싱글벙글 하며 마음이 설렌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상기 된 얼굴이 운동회 날 어린아이들의 표정과 어찌나 똑같은지...

이렇게 큰 옷은 처음 던져본다고 신기해 하면서 '옷이야!' 를 큰소리로 외치고 '잡아라 얹어라' 어찌나 큰 소리로 외치는지 귀가 다 멍멍해 집니다.

어르신 한분이 왕년에 제기 좀 차셨다고 말하며 자신 있게 제기를 들고 시작하셨는데 몸과 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마음은 이미 100개를 넘었는데, 실제 도전 하시니 열 개를 차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기차기 왕이 되어 상품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매일 진지만 드시고 훌쩍 가시다가 함께 어울려 이러한 놀이를 하다 보니 전보다 더욱 가족 같고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행복하고 살맛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로 끝나는 한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매해 더욱 풍성한 정월 대보름 행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매해 휘영청 밝은 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모두가 행복한 밥퍼의 앞마당으로 어서들 오시기 바랍니다.



With gift boxes piled up and yut board ready, everyone was waiting for Yut Nori to start, their hearts throbbing and faces smiling. Their cheeks were reddened like children on a sports day.

Throwing giant yut sticks bigger than any yut sticks they had ever seen, people were shouting here and there "Yut!" and "Catch it! Take over!" so loud that you would think you are going deaf.

One of the elders started playing jegichagi recollecting his old memories, but his body would not allow him to move the way he used to. In mind he already made way over a hundred kicks but in reality he got short of breath before he scored ten. After all he won the Jegi King prize, and he made a great smile holding the prize to the sky.

On regular days they would leave as soon as they finish their meal, but on Daeboreum, they gathered together like families do and everyone got to know each other a little better. A truly happy and wonderful piece of life was present there.

We hope that this Daeboreum festival continue and be more wonderful year after year, and hope you join us at Babfor's front yard next year on Daeboreum to celebrate the full moon with us.



# “다일공동체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호프스쿨 아이들을 교육한 지 어느새 일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 말은 곧 학생들의 학습능력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얼마 전, 중간 고사를 치르고, 중간고사의 등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Class 4의 Sarita가 전교 2등을 하였고, Sarita에게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기분이 어때?” 그러자 Sarita가 대답합니다. “2등을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앞으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서 다일 공동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살밖에 되지 않은 Sarita가 이렇게 당찬 비전을 가지고 있다니 모든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Sarita는 분명 네팔의 훌륭한 여성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팔이 진정 성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리더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Sarita와 같은 생각을 가진 멋진 여성 리더가 탄생할 수 있길 우리는 소망합니다.

## 네팔다일공동체 후원하기

네팔 다일공동체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네팔 박종원원장 977-98494-58330



**“I’d like to become a person who helps the poor same as NEPAL DAIL community”**

It’s been almost a year that we taught in the Hope school. This means that we need to check students’ learning ability as well. Few days ago, we took second term exam and published results of the examination. Sarita, who is in 4th class, got a second grade on the test.

She gave her impression of the result to us. She said, “Miss, I’m really glad that I got a second grade on this test!” “Miss, I will keep studying harder so that I wanna be a person who can support the poor like a Nepal Dail Community.”

We were all surprised when she said like that because she is only 10 years old and too small girl though she has a great ambition. There is no doubt that Sarita will grow up one of the greatest women leader in Nepal. To be a better growth of Nepal, new leaders must be needed, especially powerful women leader. We hope new Nepali leader who has the way of thinking like our student, Sarita, will come into here in Nepal.



# ‘하이’와 ‘아잉’



## Hai and Anh Brothers

### 꼭 닮은 얼굴을 한 이들은 누가 봐도 형제입니다.

어른이 보기엔 고만고만한 어린 애들 둘이지만, 하이는 언제나 동생에게 먼저 밥을 먹이고 나서야 밥을 먹습니다.

형인 하이는 이제 겨우 8살, 동생인 아잉은 6살. 한창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이지만, 형제에게 부모님은 그리 친근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약 소지로 체포되어 현재 감옥에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 형제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찢어진 바지를 밥퍼 센터 아주머니에게 꿰매 달라고 할 정도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형제의 삶에 지지가 반이 되어주고 있지 못합니다.

센터의 식사는 매일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픈 날이 많습니다. 그나마도 하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밥으로 자기 자신의 주린 배를 채우기보다는 집에서 기다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집으로 가져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이의 먹을 식사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에게 그저 밥만 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허기진 배도 채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푸르른 미래를 상상하며 공부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베트남 다일공동체에서는 주 3회 진행되는 무료급식을 매일 무료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와 아잉 형제가 밥 걱정 없이 공부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일에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Hai and Anh, they are brothers looking very alike. To some, they may be just two little kids but Hai is very mature that he always feeds his younger brother Anh then eats.

Hai the older one is just 8 years old, and his younger brother Anh is 6. They need to be taken care of but their parents are not very close to them. Their father has been jailed for possession of narcotic drug and mother abandoned them after their father has been put into prison. The brothers are living with their grand parents who in a practical manner are not very much helps of them that sometimes Hai and Anh have to ask helper at the Bapfor center to sew their torn pants instead of asking their grand mother.

Hai and Anh spend many days in hunger because

the Bapfor center does not serve meal everyday. Even in that situation, rather than eating for himself, Hai takes his portion to home and give that to his grand parents. This is why Hai's meal is always in short.

Some might say just giving food away to those who are in hunger would be no use for them and would be not meaningful, but children who are in hunger would not be able to have further goals such as studying with dreaming their future.

The Vietnam DAIL COMMUNITY is currently putting an effort to convert the free meal service system of providing meals from three times a week to seven days a week. We need your love and care for Hai and Anh brother to study without worry for daily bread and butter and to dream their future.



### 긴급요청

### 베트남다일공동체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베트남다일공동체는 한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후원 받아도 운반할 차량이 없어서 이를 꼭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해 달라며 정성껏 준비하여 보내 주시는 물품을 베트남은 물론이고 캄보디아나 주변국에도 전해 주고 싶은데 운반할 차량이 없는 실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에 필요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15,000 이 더 필요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사역에 날개를 달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천사가 되어 주세요.

**베트남다일공동체 후원하기**    베트남다일공동체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베트남다일공동체 이종현원장 84-12-6317-7912, 070 8220 6160

### If you want to support Vietnam DAIL COMMUNITY...

#### Account you send donations to:

Kookmin Bank    467701-01-142594  
(Account holder: Social Welfare Foundation Dail Social Welfare Foundation)

#### Inquiries:

Cheong Hyeun Lee, Director of Vietnam Dail Community  
84-12-6317-7912, 070 8220 6160



# 도움이 필요합니다

Philippines

필리핀다일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과 선생님, 많은 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유치원 음향기기 셋트(100만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앰프와 스피커가 오래 되어서 음향이 매우 좋지 않고 유치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수시로 음악을 틀어주어야 하지만 때때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자동 혈압계 및 혈당계(30만원)

필리핀은 병원비가 매우 비싸 빈민촌 주민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필리핀다 일비전센터를 찾아옵니다. 종종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야 할 환자들도 찾아오지만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기기가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 창문 버티컬(50만원)

적도에 가까운 나라인 필리핀은 한 낮의 햇볕이 너무도 뜨겁습니다, 실내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도 교육용 영상을 보기위해서도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창문 버티컬이 꼭 필요합니다.



## 선풍기 10대(50만원)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선풍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몇 대의 선풍기마저 매우 낡아 사용하기 곤란한 것들이 태반인데 곧 건기여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의 물품들을 후원해주시길 때 한국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시면 필리핀에서 수령할 때 매우 비싼 세금을 내야합니다. 때문에 후원을 해 주실 때 아래의 후원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원문의

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필리핀다일공동체 이명현원장 070-8220-3278, 63-927-560-7346
홈페이지	www.dail.org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주 예수 그리스도여

| 라인 홀드 니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변화 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 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시제공·Byeol(Ellie Choi)



## 네팔다일공동체

### 포카라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포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히말라야가 위치한 곳이고 공기가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네팔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포카라에서도 빈민촌의 아이들은 밥을 못 먹고 공부를 합니다.

몇 해 전부터 포카라 사역을 준비해 오던 네팔다일공동체는 드디어 오는 4월 8일 포카라다일공동체 개원과 포카라 빵퍼 개원을 앞두고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국다일공동체에서 성장한 제빵왕 리일 선교사님 부부가 포카라 다일빵공장 공장장과 부공장장으로 파송되어왔고 카트만두 다일공동체 밥퍼센터의 소남 주방장님 아들 야곰형제를 리일 선교사님 조수로 파견하여 빵퍼 사역을 위한 네팔 최고의 빵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포카라 곳곳을 다니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포카라 최대 빈민촌의 공립학교 내에 다일의 든든한 후원자인 김경미 집사님 부부의 후원으로 작은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포카라 다일 빵공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 부부는 두 번씩이나 직접 방문하시고 건축전문가까지 대동하셔서 빵공장 리모델링에 힘써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포카라 전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후원자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월 8일 포카라다일공동체의 개원을 위해...  
포카라의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Nepal/

## 베트남다일공동체



### “밥퍼센터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음악회”

2014년 1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호치민시 1군에 위치한 프랑스문화원 에서는 밥퍼를 위한 자선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본 음악회는 호치민에 거주하는 한인 어린이, 청소년의 바이올린, 우쿨렐라 연주팀인 Ardito(지도: 안혜선)가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로, 공연의 수익금을 베트남 다일공동체의 밥퍼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남학생 두 명의 씩씩한 바이올린 연주로 막을 올린 공연은, 5명의 유아들의 귀여운 율동과 노래를 포함한 우쿨렐라 연주로 이어졌고 아마추어들의 연주이니만큼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Ardito 팀이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만큼은 프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총 45명의 연주자가 29여 개의 레퍼토리를 공연한 약 2시간 동안 객석을 꽉 채운 관중들의 뜨거운 호

응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호치민 국제학교 학생은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즐거웠고 게다가 공연의 수익금이 끼니를 걱정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니 더욱 보람 있었고, 끝까지 힘을 내서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의 공연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더 큰 열매를 기약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멋진 공연을 보여준 학생들이 있기에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Ardito가 최고야!!!!

## 중국다일공동체



### 중국다일공동체 손선화 원장님 환송회와 김송자 원장님 환영회

중국 다일어린이집은 중,한 합작으로 중국 훈춘시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훈춘시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다일공동체에서 파송한 한국측 원장님이 계시고 훈춘시정부에서 파견한 중국측 원장님이 계십니다.

지난 6년간 중국측 원장님으로 수고하신 손선화 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시게 되어 온가족이 환송의 시간을 가지며 더불어 새로 오신 김송자 원장님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추억을 더듬으며 인사도 드리고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손 편지와 영상도 보며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원장님과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나누며, 서운한 마음이 크지만 손원장님의 건강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오랜시간 아이들의 든든한 나무로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아이들의 그늘이 되어주신 손원장님께 감사



와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신 김송자 원장님께도 중다일 온가족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 천사병원

### 김영주님 감사합니다.

영일제약에 다니시는 김영주님께서는 다일천사병원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의료 약품을 분기마다 잊지 않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감기약부터 영양제까지 많은 양의 의약품들을 환우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보내주셨네요. 천사병원뿐 아니라 해외 분원의 환우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김영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필리핀다일공동체



### “너무 예쁜 게 흠”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6월에 입학 할 때만 해도,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서 우리 선생님들이 무지 무지 애를 먹었었는데요...^^

이제는 제법 의젓해져서 뭐든지 잘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너무 예뻐서 그게 흠이라면 흠이지요. ^^

사진으로 봐서는 여느 부잣집 아이들 같죠?

요즘은 3월 졸업식을 앞두고 행사준비 하느라 아주 열심히랍니다.

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정이 폭~ 들어서 졸업시키고 나면보고 싶어서 어떡하냐고 벌써부터 걱정해요. ^^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산마루교회 청년아카데미에서 이주연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 집사님, 청년 등 20여명이 다일공동체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센터 청소를 비롯하여 밥퍼와 빵퍼는 물론이며,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이미용봉사도 해주셨습니다. 정성스레 손질해주시고 머리까지 감겨주셔서 예뻐진 본인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무척이나 좋아하며 감사해하였습니다.

밥퍼가 끝난 오후에는 센터 체육관에서 한국에서 준비해 온 태권도 시범과 워십 공연, 탈춤 등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는 줄다리기, 투호, 딱지치기 등 아이들과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나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과 음료도 나눠주셔서 아이들이 한국의 언니, 오빠들과 유쾌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밥퍼는 000이다

**밥퍼는 끈이다** 대한항공 송예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 하나님 사랑으로 묶여진 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풍요의 끈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긴 끈 되어서 전 세계 굶주림 없는 날까지 묶어주세요

**밥퍼는 잇몸이다** 두리양행 염한나  
주변에서도 돌아보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 끼를 챙기는 밥퍼는, 사회라는 '이'가 없어도 잇몸이 되어 따뜻한 사회의 구성원을 챙기고 제 역할을 수행하네요. 보기 좋습니다. 계속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밥퍼는 사랑이다** 두리양행 오유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비록 하루였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 섬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24여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해 오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달해드리고 싶다.

**밥퍼는 초심이다** 사랑의복지관 변삼진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 복지적 삶의 초심을 잃어버려진 나에게 초심을 회복하게 해주었다.

**밥퍼는 핫팩이다** 청주초대교회 유현영  
가슴 속에 품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나의 또 다른 삶의 시작! 다시 불을 붙이자. 우리 가족의 모습이 내 마음 속에 다시 그려진다. 다시 파이팅하자! 내 조건의 파이팅!

**밥퍼는 등대다** 충북여자고등학교 장수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밝혀주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그동안 자신들이 무심했던 어두운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등대와 같다. 앞으로 이

러한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밥퍼와 같은 봉사활동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밥퍼는 생명선이다** 반여중양교회 이응희  
밥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리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 되셨기 때문이다. 생명을 살리는 밥퍼공동체, 이땅의 영적 희망이다.

**밥퍼는 경험이다** 이노션 동이자벨  
나에게 배고픔은 선택이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면 나는 배불릴 수도 굶주리게 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밥은 선택이 아니라 생계이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서 밥퍼는 경험이고 깨달음이고 시작이다..

**밥퍼는 진정한 I AM이다** 웃음꽃 이은영  
잠시나마 깊은 내 안에 있는 마음 따뜻한 나를 만난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온전한 '나'가 내안에 있음을 느낀다. 삶속에서 이토록 따뜻한 나를 맞아본다는 것 그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밥퍼는 뉘우침이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박주연  
오늘 하루 내 손으로 다듬고 정리하고, 나누어 드리는 한 끼의 밥이 추운 날, 그분들의 뱃속을 채워드린다고 생각하니 왜 코끝이 찡해지는 건지... 늘 넘치고 풍족하다고만 느끼며 살았는데 오늘 하루, 아니 반나절의 경험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제 15개월 된 우리 아기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배려와 관심이 많은 곳하기를 나부터 노력하고 싶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정부법무공단



소통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정부법무공단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두 팔 걷어 부치고 봉사하시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국방홍보원



밥퍼를 사랑하고, 보람되고 축복되며 행복한 하루로 보내기 위해 국방 홍보원 임직원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즐겁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라의 국방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도도 지키는 국방 홍보원이 최고입니다!

한국중부발전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줄 아는 분들입니다. 한국중부발전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나눔 정성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나누는 삶을 다짐하시는 한국중부발전 여러분에게 사랑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재현고등학교



젊은 피의 놀라운 힘을 느끼며 피곤한 기색 없이 끝까지 마무리 해주신 재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 의미와 밝은 웃음으로 화답하는 모습에 이 시간이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이어주는 매개체처럼 밥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한솔CNS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십시일반 모여주신 한솔CNS 직원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눔과 봉사를 삶의 일부이자 곧 생활이라 말씀해주시며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행복을 전달하고 간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어깨동무모임



나라의 일꾼이 되기 전에 나눔의 일꾼이 먼저 되기 위해 찾아주신 어깨동무모임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온기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흐릅니다.

봄은아카데미



언제나 밥퍼를 찾아와 맑고 고운 미소로 화답해 주시는 봄은아카데미 여러분들입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아침에도 활짝 웃으며 봉사하시는 모습이 따뜻한 난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밥퍼를 찾아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모든 이가 밥 한 숟갈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밥퍼가 되었습니다.

상해체육대학교



건장한 청년들의 불끈한 힘을 느끼게 해준 상해체육대학교 여러분들입니다. 밝고 우렁찬 목소리에 더욱 더 힘이 나는 밥퍼입니다. 씩씩한 모습으로 어르신들과 담소도 나누고 같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상해체육대학교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Canon코리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 운동인 밥퍼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캐논코리아 임직원 여러분들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 주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방문해주신 캐논코리아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신규후원자

2월1일~20일

(주)마인정보기술, 강옥실, 강지은, 고범진, 고유경, 권곡준(원승찬), 김강욱, 김근식, 김수민, 김예영, 김은영, 김은정(박승철), 김재민, 김정은, 김현진, 김홍자, 남승자, 박성주, 박승철헤어(노원점), 박승철헤어(동수원홍플러스점), 박연순, 박종철, 반여중앙교회, 손남희, 송래현, 송예선, 송재근집사, 신한카드자금, 안곡3-3, 양현숙, 에버랜드패션, 오혜미, 우호순, 유찬자, 윤명중, 윤연희, 윤자선, 이강, 이경자, 이민순, 이상민(이은영), 이상은, 이상주, 이성일, 이순석, 이은진, 이은하, 이재혁, 이정주, 이지희, 임미진, 임영우(김혜경), 임유빈(김혜경), 장성현, 장한경, 정반화, 정상분, 정성민, 정태근, 조성실, 조에스더, 조영대, 조정환, 최순화, 최익근, 편이숙, 한세원(한인창), 한정선, 홍윤희

### 밥퍼나눔운동본부

1월 11일~2월 10일

후원자 김복만, 김수민, 김승연, 김영석, 김영주, 김영환, 김윤희, 김재민, 김해곤, 노현숙, 박종혁, 박효정, 변상신, 서지은, 송예선, 송정은, 신무호, 양정진, 오상숙, 오영민, 오유진, 이선헌, 이세라, 이은영, 이종만, 전나희, 정시로, 정지연, 편이숙, BRT코퍼레이션, CBS, SH로지스틱스, 강은국, 광현교회, 국방홍보원국순애, 권혜진, 김보나, 김종운 · 김진호팬클럽, 김현진, 대한주정판매, 명지향, 무주장로교회, 박소순, 박정근 · 박언겸, 반여중앙교회, 봄온, 사랑나눔행복나눔, 수도권산악회, 에스지엔지, 에이엠지코(주), 예향어린이집, 오에스아이소프트코리아, 우상용, 윤명중, 윤순옥, 윤현숙, 이명신, 이영희, 장문성, 재현고등학교, 최미선, 최주영, 큰은혜교회, 팬케익님, 한국커피연합회, 현대엔지니어링, 황재영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밥퍼 후원물품 강남푸르마켓 케첩11통, 강민수 · 이초아 콩20kg, 경흥농장 굴10kg\*50박스, 김근식 핫팩 520개, 김진호 팬클럽 쌀 10kg\*10포, 드림재단 빵3200개, 무명 쌀 20kg\*4포 10kg\*3포, 미디어리서치 쌀20kg\*10포, 방배동카페 소세지 6박스, 서울우유 우유3000개, 시민떡집 떡국떡120kg, 친환경두채류 콩나물 20봉, 한국중부발전 온누리상품권 3,000,000원, 허벌라이프 다이어트바 6통

### 네팔다일공동체

I Love Nepal, Kul Bahadur Tamang, 류명선, 선한주, 송누가, 송연수, 수산교회, 순천대학교, 신구대학, 오정신, 온세계교회, 윤홍섭 (대선 E&C 플랜트 사업팀 이사), 전주 덕일교회 청년부, 전주새생활교회, 정주호, 최영선, 한남대학교 고투빌, 홍정표

### 베트남다일공동체

1월 백불의 기적 LG-VINA, THANH CONG, 기업은행, 나할, 닥터카, 대우인터내셔널, 롯데리아, 베가스, 베트남한인교회 남선교회, 보민건설,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리랑화학, 한동이엔씨, 아산상선, 우리은행, 포스코SOUTH ASIA, 포스코베트남, 호치민지상사협의회, 이용민

1월 후원물품 THANH CONG(T셔츠 200장), 닥터카(광열오븐), 롯데리아(쌀 500kg), 베델비나(책가방100개, 손지갑 100개), 정철(베개 40개), 포스코베트남(선풍기 3대), 한동이엔씨(자전거 1대), 해피 쿡(후라이팬7, 냄비3)

2월 백불의 기적 김찬, 롯데리아, 보민건설, 사이공한인연합교회, 포스코베트남, 아리랑화학, A.J.KOREA, 나할, 닥터카, LOSCO, Ardito, 대장금

### 중국다일공동체

김성재(Obey & Praise), 이숙의, 양자00회, 김해화, 4소학교 5-2, 훈춘시 민정국, 권윤경, 무명, 애심떡집, 훈춘시 4,5,6 중학교 학생들

### 다일작은천국

후원금 롯데백화점모금함, 우리은행 강북영업  
후원금품 박문정: 입소자생활용품, 익명: 쌀20kg 1포, 채움터: 헌책 500권

### 다일천사병원

후원물품 한솔치과 기공소, (이형원소장)-틀니후원  
ANIBIO 성수현대표-생수후원

다일은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 ARS 060-708-1588

###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 참여

####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183-4339-7009

E-mail bom@dail.org

070-7792-5451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070-8220-3940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E-mail dail8004@gmail.com / hslee0304@hot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영성수련

## 2014년 상반기

### 1단계

- 154기     3월 24일 ~ 3월 28일
- 155기     4월 21일 ~ 4월 25일
- 156기     5월 12일 ~ 5월 16일
- 미주 16기   5월 26일 ~ 5월 30일



대표 | 최일도 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비야(전 월드비전 구호팀장)



“4박 5일의 시간이 제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창조의 질서가 보여서 참 신비하고 놀라웠죠. 사물을 보는 힘, 진실을 아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 진실이 보이니까 제 자신과 하나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류승완(영화감독)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밥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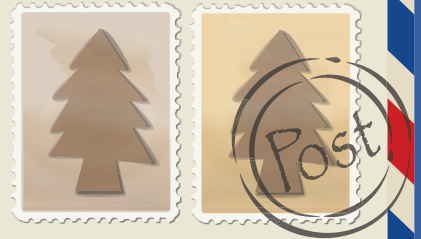
날마다  
부치는  
행복편지와 함께  
벗님들과 우정과 사랑과 희망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  
·  
·

시인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최일도 올림

**Facebook**  
페이지에서 기다립니다!!



최일도 목사의 행복편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hoiildolette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더 많은精彩内容 다일공동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dail.org](http://dail.org)



서울다일교회 홈페이지  
[s-dail.org](http://s-dail.org)



다일공동체 페이스북  
[facebook.com/dailcommunity](https://facebook.com/dailcommunity)



다일공동체 블로그  
[dail1004.tistory.com](http://dail1004.tistory.com)



다일공동체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다일공동체의 새소식을 한발 빠르게 접하실 수 있고  
서울다일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일도 목사님의 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